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8,174.3	16.2	115,500	0.0	-3.8	-9.1	-10.1	80.5	38.6	0.6	0.6	0.7	1.4
현대중공업지주	5,048.9	21.7	310,000	2.6	-8.7	-12.4	-10.4	4.2	3.5	0.6	0.5	14.1	14.7
현대일렉트릭	419.4	5.8	20,600	-2.1	-16.3	-33.8	-7.2	2.0	1.7	0.2	0.2	9.3	9.7
현대건설기계	838.3	10.9	42,550	-2.0	-15.4	-21.9	-0.4	2.7	2.0	0.3	0.3	11.7	13.9
삼성중공업	5,109.3	19.9	8,110	1.1	-9.7	-6.6	9.4	51.2	25.4	0.5	0.5	1.0	1.9
대우조선해양	2,958.9	11.5	27,600	0.7	-7.4	-14.3	-19.2	9.7	15.2	0.8	0.8	9.0	4.6
현대미포조선	2,093.0	13.4	52,400	0.6	-11.8	-14.4	-12.7	11.3	8.2	0.4	0.4	3.6	4.8
한진중공업	174.5	3.3	1,645	0.0	N/A	N/A	-0.6	33.1	8.3	0.2	0.2	0.7	2.8
현대엘리베이터	2,150.9	20.4	79,200	-2.1	-12.9	-33.7	-26.0	14.0	13.6	1.9	1.7	14.6	13.3
두산밥캣	3,228.0	25.3	32,200	0.8	1.7	0.8	2.2	11.8	11.1	0.9	0.9	7.4	7.6
현대로템	1,623.5	4.2	19,100	-3.5	-18.2	-32.3	-31.4	24.6	16.8	1.1	1.0	4.5	6.3
하이룩코리아	251.8	47.3	18,500	1.6	-7.0	-2.1	12.5	8.4	7.7	0.7	0.7	8.8	9.0
성광밴드	323.2	16.8	11,300	0.0	-1.7	-0.9	-0.9	998.9	40.5	0.7	0.7	0.1	1.8
태광	298.1	11.6	11,250	-0.4	-3.4	-5.9	-3.8	67.2	32.8	0.7	0.7	1.0	2.1
두산중공업	894.7	9.7	6,480	-1.5	-11.8	-28.1	-22.8	-19.5	11.6	0.3	0.4	-0.1	3.1
두산인프라코어	1,403.0	16.0	6,740	-1.3	-10.6	-14.6	-11.2	4.6	5.0	0.7	0.7	17.7	13.4
HSD엔진	127.3	3.3	3,865	-0.5	-17.8	-23.5	-26.8	-10.1	N/A	0.5	N/A	-4.7	N/A
한국항공우주산업	3,021.7	15.6	31,000	0.6	-15.6	-7.0	-2.8	45.2	19.8	2.7	2.5	6.1	13.7
한화테크윈	1,595.0	14.5	30,650	-0.2	-1.6	-5.7	-5.7	127.0	24.3	0.7	0.7	0.6	2.8
LIG넥스원	763.4	7.5	34,700	0.6	-7.8	-3.3	-6.1	79.9	35.1	1.6	1.2	2.4	3.6
태웅	191.3	3.6	9,560	-2.5	-11.5	-13.5	-9.0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261.5	7.3	9,690	0.2	17.3	15.6	25.5	-20.4	17.5	3.6	3.0	-16.2	18.5
한국가분	371.9	15.3	8,460	-0.7	6.1	3.0	20.2	131.7	22.3	1.2	1.2	0.9	5.4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W: 신조선가 지수 131p, 중고선가 지수 96p 기록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 지수는 131p, 중고선가 지수는 96p로 전주와 동일함. Minerva Marine은 대한조선에 11.5만DWT급 LR2 탱커 2척을 발주했고, 인도는 2021년 2분기로 예정됨. H-Line Shipping은 중국 New Times SB에 Newcastlemax급 벌크선 2척을 추가 발주함. 해당 선박은 Vale에 용선되며, 인도는 2021년 예정됨. (Clarksons)

Clarksons sees tentative shipping recovery but headwinds remain

Clarksons Research에 따르면 향후 2년간 선박 공급증가율은 1.5~2.0%로 예상되는 반면 선박 수요증가율은 3% 근처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점진적인 시장 개선이 예상된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둔화되었으나, 향후 10년간 인도 및 기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운수요 성장에 예상된다. 다만 글로벌 경기에 리스크는 상존한 상황임. (TradeWinds)

현대중, 대우조선 현장 실사 앞두고 긴장 고조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현장 실사를 진행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음. 양측은 지난달부터 최대 10주 일정으로 대우조선 실사를 해옴. 대우조선의 과거 수주 계약서 등 서류 검토 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들어 만큼 현장 실사가 필요한 판단임. 다만 대우조선 노조가 조선소를 봉쇄하고 있어 현장실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임. (한국경제)

Anadarko agrees to Oxy merger

Chevron의 Anadarko 인수 포기 이후, Anadarko는 Occidental Petroleum(Oxy)와 최종합병 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려졌다. 인수금액은 570억달러로, 이전 Chevron이 제시한 가격은 500억 달러임. 인수계약 취소로 Anadarko는 Chevron에 위약금 10억달러를 지불함. 인수는 하반기 마무리되며, Mozambique LNG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FID가 진행될 전망이다. (Upstream)

현대중, 주주 친화 정책 요구에 "혹자 전환 최대한 앞당길 것"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BPS가 6.26%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현중에 주주친화정책을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한투는 기존 투자자들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어, 주주친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 현대중공업은 혹자전환을 앞당기고, 그룹 차원 배당정책(배당성향 30% 이상)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으로 언급. (조선비즈)

두산밥캣, 7억 달러 폐기물 처리 설비 장기 공급...2조2000억 규모

두산중공업은 해외 자회사인 두산밥캣이 영국 셸라필드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기간과 금액은 20년간 약 2.2조원 규모임. 셸라필드 원전 산업단지에는 영국 원전의 70%가 위치, 현재 7개 원전의 해체사업이 진행 중임. 두산밥캣은 향후 20년간 진행될 원전 해체 프로젝트에서 기계 및 전기시공을 수행할 예정. (뉴시스)